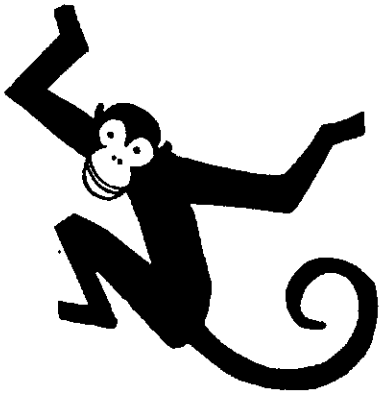

조선말의사투리

李克魯

一、序言
二、方言分布區域
三、各方言의 特色
1、語調
2、音韻
3、語法
4、語彙
四、結論

一、序言

國語敎育이 發達된 나라에도 곧은 따라 사투리가 없지 아니하다。或은 地理的 環境을 따라 或은 政治勢力의 變動을 爲하야 或은 이웃 文化의 接觸으로 말미암아 方言의 發生과 存在는 自然의 理어니와 또 사람으로 個性發達의 特徵이 아니라 할 수 없다。

朝鮮은 그리 크지 아니한 地域으로서 方言이 相當히 다르고 또 많은 셈이다。假令 敎育도 받지 못하고 出入도 넓지 못한 두 다른 方言地方 사람이 처음 맞난다면 通情이 잘 못된 것은 事實이다。朝鮮말에 方言이 이러케 複雜한 것도 우에 말한 여러가지 原因이 다 잇는 것이다。

山國의 朝鮮이니 交通不便도 한 原因이요 이웃의 關係로는 政治上이나 文化上으로 北에는 女眞(滿洲)、蒙古、中國、露西亞의 一南에는 日本의 影響을 받은 것이나 國內移民關係로는 高麗祭宗時에 尹瓘의、李朝世宗時에 金宗瑞의 北征으로 女眞族을 咸鏡道에서 滿洲로 몰리치고 中南朝鮮人(特히慶尙道人)을 그 땅에 移民시키어 直接 影響을 준것이 다 한 原因이 된다。그러나 朝鮮말의 方言은 古今語를 比較한바 大體로 時間的 變遷으로 생긴 것이 많다。

二、方言分布區域

사투리를 細別하야 말하기는 퍽 複雜할뿐아니라 오래 동안 詳細한 調査를 하지 않고는 不可能한 일이다。그러므로 朝鮮語를 五大方言으로 大別하야 말하려 한다。

(一) 關西方言(平安道사투리、高句麗方言)
(二) 湖南方言(全羅道사투리、百濟方言)
(三) 嶺南方言(慶尙道사투리、新羅方言)
(四) 關北方言(咸鏡道사투리、沃沮方言)

(五) 中部方言(京畿道사투리、混成方言)

이 다섯가지 사투리의 地理歷史的 關係를 말하자면 關西方言은 高句麗故地를 中心하얏으니 平安南北道와 黃海道一部에 普及되엇고 湖南方言은 百濟故地를 中心하얏으니 全羅南北道와 忠淸南道에 普及되엇고 嶺南方言은 新羅故地를 中心하얏으니 慶尙南北道와 江原道 一部와(注文律以南) 全羅南道海岸一帶에 普及되엇고 關北方言은 沃沮故地로 女眞族 寓居地이엇섯고 其後에 中南朝鮮의 殖民地인 咸鏡南北道에 普及되엇고 中部方言은 高句麗、百濟、新羅 三國交界地요 또高麗朝와 李朝와의 서울을 두고 千年동안 政治中心地로 各地方사람의 交際場이된 京畿道와 또 그 隣近地인 忠淸北道와 江原道一部(襄陽以北)와 黃海道一部에 普及되엇다。

三、各方言의 特色

어느곧 사투리나 그 特色을 여러가지 點으로 볼수 잇다。或은 語彙가 다르고 或은 語法이 다르며 或은 音韻이 다르고 或은 語調가 다르다。그러나 그中에 方言區別은 語調로서 定하게 되는 것이다。音韻이나 語法이나 語彙는 한 方言안에서도 서로 다르고 또 다른 方言과도 서로 같은것이 많다。

1、語調。朝鮮말의 語調를 西海岸平野語調와 東海岸山嶽語調로 大別할수 잇다。平野語調는 高低보다 長短을 重히 여기는 것으로 부드럽고 고운 것이 特色이다。全羅道、京畿道、平安道사투리들이 여기에 屬하는데 또 各各 特色을 말하자면 全羅道語調는 情緖의 美感이 잇고 京畿道語調는 社交의 美感이 잇고 平安道語調는 活潑의 美感이 잇다。山嶽語調는 長短보다 語低를 重히 여기는 것으로 억세고 뚝뚝한 것이 特色이다。咸鏡道와 慶尙道사투리들이 여기에 屬하는데 또 各各 그 다른 点을 말하면 咸鏡道語調는 剛毅의 美感이 잇고 慶尙道語調는 純直의 美感이 잇다。

2、音韻。各地方에 말의 소리가 다름은 퍽 複雜하다。그러므로 重要한 몇 소리의 歷史的 變遷만을 方言의 實例로서 말하려 한다。

母音「ㅅ」音價에 對한 여러 學說이 잇으나 그것을 여기에 紹介할 必要가 없고 다만 古書에 그 소리를 썻던 말이 여러 가지 母音으로 變하는 가온대 ㅏ와ㅗ音으로 變한 것만 말하려 한다。大體로 全羅南道와 全羅北道一部와 慶尙南道大部와 咸鏡北道北部에서는 ㅗ音으로 變한 말이 其他 各地方에서는 ㅏ音으로 變하엿다。例를 들면

포ᄅᆞᆯ(臂)을 前者는 폴 後者는 팔

포리(蠅)를 前者는 포리 後者는 파리

몰(馬)을 前者는 몰 後者는 말

子音「ㅿ」音價는 英語의 Z와 비슷한 것인데 이제 ㅇ(喉音 곧 아야줄의 子音자리에 잇는소리)와 ㅅ 두 소리로 變하엿다。大體로 보아서 中部와 關西地方에서는 ㅇ로 變하엿고 湖南과 嶺南과 關北地方에서는 ㅅ으로 變하엿다。例를 들면 가을(秋)을 가슬 겨을(冬)을 겨슬

구유(槽)를 구수、가위(剪刀)를 가새

子音「ㅂ」音價는 德語에 W音과비슷한 것으로 이제 우와 ㅂ으로 變하엿는데 大體로 嶺南과 關北地方에서는 ㅂ으로 其他地方에서는 우로 變하엿다。例를 들면

덥다 더버서 더본 곱다 고바서 고본

덥다 더워서 더운 곱다 고워서 고운

맵다 매버서 매본

맵다 매워서 매운

댜더 줄과 탸터 줄이 關西地方에 만單母音化하엿고 其他地方에는 ㅁ蓋音化하엿다。例를 들면

綴 字 關西地方 其他地方

덩거장(停車場) 덩거당 정거장

런디(天地) 런디 천지
렬로(鐵路) 렬로 철로

3、語法。이것도 各地方에서 獨特하게 쓰이는 토가 많이 잇으나 이제 몇 가지식 例만 들고저 한다。

(一) 關西方言。(1) 願望과 要求의 뜻을 表하는 動詞밑에 쓰는 尊敬終結토「라구요」

하시라구요(爲)、잡수시라구요(食)、오시라구요(來)

(2) 名詞、形容詞、動詞밑에 다 쓰이는 尊敬疑問토「나요」사람이나요(人)、희나요(白)、검으나요(黑)、가나요(去)、먹나요(食)

(3) 名、形、動 各品詞밑에 쓰이는 平交 或 手下人에게 쓰는 疑問토「슴마」(母音下에는 ㅁ마)

動 감마(去)〔現在〕 갓슴마〔過去〕 가겟슴마〔未來〕
詞 먹슴마(食) 먹엇슴마 먹겟슴마
形容詞 높슴마(高) 돗슴마(好) 참마(寒)
名詞 사람임마(人) 솜마(牛) 조흼마(紙)

(4) 過去完了를 表하는 「엇섯」을 「엇댓」으로 씀。

갓댓소(去)、먹엇댓소(食)、주엇댓소(給)

(5) 主詞토 「가」를 「래或리」로 씀。

내래(내가) 임재래(당신이) 개ㅣ리(그아이가)

(二) 湖南方言。(全羅道와 忠淸南道) (1) 名、形、動 各品詞밑에 尊稱으로 問答語에 通用하는 토。「는게라오」、「ㄴ게라오」(「는그라오」、「는거라오」、「는가라오」)

하는게라오(爲)〔現〕 햇는게라오〔過〕 하겟는게라오〔未〕
큰게라오(大)、적은게라오(小)、조흰게라오(紙)、사람인게라오(人)

(2) 動詞의 過去와未來의 問答語에 通用하는 尊稱토 「서라오」 햇서라오(爲)〔過〕、하겟서라오〔未〕

(3) 名、形、動、各 品詞의 問答語에 通用되는 尊稱 토。「지라오」、햇지라오(爲)〔過〕、하지라오、하겟지라오〔未〕、히지라오(白)、검지라오(黑)、사람이지라오(人)

(三) 嶺南方言。(1) 名、形、動 各品詞밑에 尊稱으로 쓰는 疑問토。「는기오」、「ㄴ기오」(늉기오、눙개)

하는기오(爲)〔現〕、햇는기오〔過〕、하겟는기오〔未〕
힌기오(白)、검은기오(黑)、사람인기오(人)、괜기오(犬)

(2) 將次 實行如何를 表示하는 뜻으로 原動詞에 助動詞「하」를 連接시키는 말 「ㄹ락」(ㄹ라고의 略된 말) 할락하늉기오(爲)、먹을락하늉기오(食)

(3) 接續토 와、과를 「캉」으로 쓰는 것

소캉 말캉(소와 말과)、나캉 너캉(나와 너와)

(四) 關北方言。(1) 名、形、動 各品詞밑에 尊稱으로 答하는대 쓰는 토。「꼬마」(꾸마、구마)

하꼬마(爲)〔現在〕、햇소꼬마〔過去〕、하갯소꼬마〔未來〕
희우꼬마(白)、검소꼬마(黑)、개우꼬마(犬)、사람이우꼬마(人)

(2) 名、形、動 各品詞밑에 尊稱으로 問答語에 通用하는 토。「ㅁ매」(ㅁ메)、

함매(爲)〔現〕、햇슴매〔過〕、하겟슴매〔未〕
흼매(白)、검음매(黑)、갬매(犬)、사람임매(人)

(3) 動詞밑에 尊稱으로 쓰는 疑問토 「ㅁ둥」(ㅁ두)

함둥(爲)〔現〕 햇슴둥〔過〕 하겟슴둥〔未〕

(4) 名、形、動 各品詞밑에 尊稱으로 쓰는 不確實한것을 보이는 答토。「ㅂ찌비」

함찌비(爲)〔現〕、햇슴찌비〔過〕、하갯슴찌비〔未〕
희웁찌비(白)、검으웁찌비(黑)개웁찌비(犬)사람이웁찌비(人)

(5) 目的格토 「을、를」을 「으或우、르或루」로 씀。

밥으 잡수오(食飯)、옷으 입는다(着衣)、술우 먹는다(飮酒)、괴기르 삶는다(烹魚)

(五) 中部方言(서울말)。(1) 名、形、動 各品詞밑에 쓰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對答하는 토。「사와요」、「와요」

그러사와요(然)、먹엇사와요(食)、먹겟사와요、먹사와요、크와요

(大)、쳐사와요(小)、소이와요(牛)、사람이와요(人)

(2) 까닭을 表示하는 또。「니깐두루」

가니깐두루(去)、먹으니깐두루(食)

4、語彙。이것은 더욱 다른 點이 많으니 그 까닭은 무엇보다도 첫재 同一한 語原을 가진 말도 音韻의 變遷을 따라 形形色色으로 달라젓으며 或은 같은 말을 가지고 아조 딴 뜻으로 쓰며 或은 같은 事物에 딴 語原의 말을 쓰기도 한다。그 紊亂한 程度는 方言區域을 갈라서 말할 수가 없으므로 이제 몇마디 말을 例로 들어서 大概 調査된 대로 各方言을 羅列하야 參考케 할 뿐이다。

(1) 할아버지(祖父)를 할아바지、할아부지、할아배、할아반、할배、할부지、할배씨、할바씨、할밤、할뱀이、하르방、한아씨、큰아바이、아바이。

(2) 혀(舌)를 해、헤、쇠、세、쎄、새、시、씨、쇠、세바닥、세까닥。

(3) 키(箕)를 치、체、칭이、쳉이、챙이、푸는체。

(4) 참외(眞瓜)를 참위、참웨、참왜、참우、참에、참이。

(5) 잡자리(蜻蛉)를 잼자리、자마리、잔자리、불잔자리、남자리、남아리、찰기、철기、철갱이、철이、초리、철니뱅이、차랭이、철갱이 철냉이、소곰쟁이、까랭이、어리리、밤버리。

(6) 여호(狐)를 여히、여수、여시、야시、야수、얘수、예수、앳기 얏팡이、얏갱이、엿갱이、앳갱、영갱이、영끼、영우。

四、結論

朝鮮語의 方言狀態는 上述한 바와 같이 紊亂하다。그러나 우리는 그 方言이 많음을 근심할 바가 아니요 다만 標準語와 標準綴字가 서지 아니 한 것을 걱정할 뿐이다。

朝鮮語는 적어도 獨特한 제文字로 적어온제가 이미 半千年이 되엇으니 文獻도 적지 아니 하려니와 또 二千餘萬人의 혀끝에 살아서 날로 움직이니 그 言語의 硏究材料는 山같이 쌓여잇다。그러나 科學者의 開拓의 힘이 아직 넉넉이 미치지 못한 것을 恨嘆하는 바이다。

標準語를 세우는 科學的方法은 여러 方言中에 가장 勢力잇는 方言 하나를 가리어서 標準을 삼고 不足한 點과 잘못된 點은 文獻과 다른 方言으로써 補充하며 質正하는 것이다。그래서 우리도 이제 標準朝鮮語를 세우는 대는 서울方言을 標準삼고 다른 地方의 方言과 또 옛 文獻으로써 그 못자람을 채우고 잘못됨을 바로삼아서 國語의 科學的 基礎를 세우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標準語와 標準綴字의 成立은 마츰내 標準辭典이 完成되어야 될것이다。(끝)

投稿大募集

實話　우리들의 어굴한 事情

레포　農村에서、工場에서、學窓에서

珍聞　우리고을의 珍事錄、奇人傳

批判　本誌記事의 批判文、反駁文

規定

一、字數　二千字以內。
一、新綴字法으로 쓰고 單語와 單語사이는 떼어쓸것。
一、期限은 每月三十日內。
一、揭載된 原稿에는 薄謝進呈。
一、原稿는 絕對로 返還치아니함。
一、投稿는 京城府西大門町一ノ二東光社編輯局投稿募集係로

注意

郵便料金이 不足되는 原稿는 返還합니다。原稿를 부치실 때에는 開封하고 原稿在中이라고 쓰시도록 注意하십시오。